

대화를 하려면 '사람' 과 '사람' 이 만나야

대화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대화가 됩니다. 이 말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 과 '사람' 이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한쪽을 무시하면 '결정하는 자' 와 '따르는 자' 의 관계이지, 동등하게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는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가 깨어지면 '대화' 는 일방적인 '통보' 와 '복종' 만을 내용으로 변질됩니다. 그것은 이미 대화가 아닙니다.

자녀와 대화하고자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며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형제를 아낄 줄 압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지역사회 의 어른들로부터 사랑 받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본다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

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마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주 보되, 친밀감 있게 마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마주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사랑을 품고 마주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대화하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지능(EQ)도 함양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내 이야기만 고집스럽게 주장하거나 결론을 머릿 속에 가지면 이미 대화는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왜곡되지 않게 듣고, 또 내 입장을 이야기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입니다. 자기가 혼자 결론을 다 내리고 나서 '할 이야기 있으면 해봐라' 는 식의 태도는 대화에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녀와 대화를 주고 받으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 갈등으로 점철된 집단에서도 지혜로운 중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들이 대화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자녀와 대화하는 부모 되기

부모넷 www.bomonet.or.kr

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대화 문화가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조금해서, 대화하자고 아이들 불러다 놓고 화만 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화’란 ‘대놓고 화내는 것’이라고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친구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형제, 자매 부모, 교사, 이웃집 어른과도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기고 고함지르고 울면서 자기 고집만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친구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기보다는 맘에 안들면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무런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대화를 연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직 자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잘못 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과 태도를 바꾸셔야 합

니다. 그리고 내 자녀 뿐만 아니라 이웃집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잘 하는 부모님들은 대화의 기본적인 전제들 외에도 자녀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발달적 특징, 부모와 자녀의 성격 차이, 또, 우리 사회의 독특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발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대화하면서 자란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PPFK

